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문 열린다

한전 등 13개 기관 설명회, 1615명 중 244명 지역인재 선발
2400여 명 인턴제·대학 학점 연계 '오픈캠퍼스' 활용해 볼만

6일 나주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2022년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기관 인사담당자와 모의면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올해 16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44명이 광주·전남 인재로 뽑힌다.

지역인재들은 혁신도시 채용문을 넘기 위해 지역 대학 학점과 연계한 '오픈캠퍼스'와 2400명 넘는 인턴제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남도는 '2022년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를 열고 13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상반기 825명·하반기 790명 등 16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인재로는 상반기 143명·하반기 101명 등 244명을 채운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은 올해 842명(상반기 435명·하반기 407명)을 뽑을 예정으로, 110명이 지역에서 채용된다.

한전은 상반기 대졸 공채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전력그룹사 3곳은 이달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한전KPS는 315명 중 77명, 한전KDN 80명 중 16명, 한국전력거래소 35명 중 4명을 지역인재로 뽑는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4개 농업 관련 공공기관은 총 251명 중 21명을 지역 채용한다.

오는 9월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각 201명 중 12명, 30명 중 5명을 지역인재로 뽑는다.

이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7명 중 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34명 중 1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5명 중 2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7명 중 3명 등이 지역 채용 계획을 세웠다.

직무 경험을 쌓고 채용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턴제도는 올해 2400여 명 규모로 진행된다.

한전 체험형 인턴은 4월과 8월에 걸쳐 총 1600명 뽑는다. 각 3개월(12주) 동안 활동하며 인턴 우수 수료자는 서류전형 가점을 3%에서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전KPS는 오는 8월 뽑는 인턴을 만 34세 이하 청년 150명(일반전형)과 동신대·목포대 3~4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전형은 9월부터 12월까지 13주 동안 활동하며 지역대학 학생들은 16주 동안 인턴십을 한다.

한전KDN은 협약을 맺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인턴제를 운영하며, 4월과 9월 만 34세 이하 청년 100명을 뽑는 공개모집형도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과 연계해 광주지역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오는 8월 '광주청년일경험드림'에 동참하며 광주청년 8명과 일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청년인턴 250명과 현장실습생 100명을 뽑아 1~2개월 동안 인턴십을 시행한다.

이외 한국인터넷진흥원 36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0명 등 인턴십을 진행한다.

혁신도시 취업준비를 하는 지역 대학생이라면 '오픈캠퍼스'(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 과정)를 노려볼 만하다.

오픈캠퍼스는 혁신도시 기관과 지역대학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직무·현장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이게는 1학점에서 최고 3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된다.

한전은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에너지밸리 전문인력양성과정'(광주·전남 70명)과 '에너지밸리 융복합인재양성과정'(동신대 40명)을 진행한다. 이 두 과정 모두 3학점이 주어진다.

한전KDN은 조선대·원광대 학생 40여 명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3학점)을 진행하고, 배출된 강사들은 광주·전남·전북 초·중생 200여 명에게 교육기부를 벌이며 1학점도 얻는다.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대학생 240여 명과 '빛가람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를 진행한다. 한전KPS는 오는 9월부터 넉 달 동안 30여 명 규모 '일·학습 병행 체험형 인턴'을 운영한다.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고교생 대상 '미래 영농인 양성과정 3기'와 대학생에게 1학점을 주는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과정 4기'도 하반기 추진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 대상 932명 중 287명(30.8%)으로, 목표 비율인 27%를 초과 달성했다.

이날 모의면접과 일대 일 상담에 참여한 김병문(25·동신대 전기공학과 4년)씨는 "내 고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전이 있는 나주지역 대학 진로를 결정했다"며 "어학점수를 높이고 직무 관련 자격증을 마련하며 면접관으로부터 얻은 취업정보를 활용해 졸업반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국민감사관 2기 모집

한국전력은 오는 15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전 국민감사관' 2기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 국민감사관은 일반 국민이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기 감사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한전은 올해 2기 선발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또한 국민감사관의 사업소 업무 현장 방문을 지원하고 한전의 경영 현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기 감사관 12명은 일반 국민 7명,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은 전력공급, 전기요금, 전주 이설 등 국민 접점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은 안전관리, 계약 관련 부패 예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일반 국민 선발 시에는 에너지산업 및 감사 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을 우대한다.

한전은 국민감사관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도입한 국민감사관 제도 영향으로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청렴문화 정착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 조현준 회장, 디지털 전환으로 MZ세대와 만난다

리사이클 섬유 활용 친환경 패션시장 선도·NFT 신사업 확장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 활용 신입사원 입문 교육 실시도

효성 조현준〈사진〉 회장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입사원 교육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MZ세대의 관심이 높은 NFT 신사업에 뛰어들며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를 활용한 의류제품을 선보이는 등 친환경 패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6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220여명의 신입사원이 참여하는 입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MZ세대가 선호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방식을 도입해 신입사원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효성은 가상공간을 본사사옥, 대강당, 연수원, 공장 등으로 구성해 오프라인과 유사한 교육·소통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구미·울산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생산현장의 외형을 그대로 본 딴 효성사업장 건물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실제로 현장을 견학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음성대화, 화상연결, 화면 공유 등의 기능을 활용해 신입사원들이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

강당과 달리 말소리가 퍼지지 않는 카페 공간은 신입사원들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됐다.

또한, 효성은 최근 MZ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NFT 신사업에 뛰어들어 빠르게 NFT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 11월 효성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가 큐레이션 기반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정식 오픈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첫 NFT 작품을 완판하는 등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NFT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방침이라는 게 효성 측의 설명이다.

효성의 블록체인 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최근 큐레이션 기반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정식 오픈하고 김연경 선수를 콘텐츠로 한 박승우 작가의 'Something New'를 선보였다. 〈효성 제공〉

이밖에 효성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을 적용한 소재를 개발·공급하는 등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늘려가며 친환경 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고,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그룹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

광주은행, 비대면 발급

광주은행이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학식 캐시백' '커피 상품권 증정' 등 '2022년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학생증 체크카드 행사에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은 전남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동신대, 동강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목포해양대, 호남신학대, 기독간호대, 초당대, 보건대 신입생 및 재학생이다. 이들 대학은 광주은행과 학생증 체크카드 협약을 맺었다.

행사에 응모한 뒤 학생증 체크카드로 3만원 이상 이용하면 스타벅스 음료이용권을 준다.

택시 이용금액의 10%(1일 최대 500원·1인 5회)를 돌려주거나 교내 학생식당 이용 때 5%(1일 최대 2500원·월 최대 3만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마련됐다.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발급할 수 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중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활의 아쉬움이 큰 요즘, 우리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나라장터 등록 광주 업체 60% '무입찰'

지난해 1만4120곳 중 5603곳만 입찰…전남 64% 참여

공공조달 단일창구인 '나라장터'에 등록한 광주 업체 60%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미입찰 비율은 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전북 나라장터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등록 업체 가운데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 비율은 광주 39.7%, 전남 64.0%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업체 12만3706개 가운데 11.4%에 해당하는 1만4120개가 나라장터에 등록했다. 전남 전체 업체 16만1883개 중 2만2514개(13.9%)가 나라장터에 이름을 올렸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비중은 광주 0.2%(246개), 전남 0.4%(691개)에 불과했다.

지역 10개 업체 중 1개꼴로만 나라장터 등록을 한 가운데 이들 업체 중 지난해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비중은 광주 39.7%(5603개), 전남 64.0%(1만1441개)로 집계됐다.

이 같이 저조한 나라장터 참여도 탓에 광주 업체가 해당지역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비중은 56.8%(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63.6%)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전남 업체가 전남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비중은 70.6%(5조4000억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지역업체들의 나라장터 수주액은 광주 2조원·전남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6%(3000억원)·11.6%(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 수주액 중 공사분야 비중이 광주 45%(9000억원)·전남 59.7%(4조6000억원) 등으로 물품이나 용역분야보다 많았다.

지난 2002년 9월 구축된 나라장터는 한 번 등록으로 공공기관의 공고, 입찰, 계약 체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5.03 (-24.17)
↓	코스닥	943.13 (-9.34)
↑	금리 (국고채 3년)	2.941 (+0.062)
↑	환율 (USD)	1218.30 (+5.60)

전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단체·기업 찾기 나서

공식 공유단체로 지정…지역문제 해결 활동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전남도가 도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공유활동 단체(기업)를 발굴해 전액 도비로 예산을 지원한다.

'공유경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공간, 물건, 재능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달리 생산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공유단체(기업) 공유활성화 재정 지원, 2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은 일반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전남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정한 공유단체(기업)에 현판을 지원하고, '전남도 공유단체(기업)' 명칭 사용을 허용한다.

공유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공유활성화 재정 지원은 전남도 공유단체(기업)로 지정한 곳과 고유번호증을 갖춘 10인 이상 주민협의체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공유사업당 최대 1000만원의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한다. 별도 자부담은 없다.

주요 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일상 및 병원 동행 서비스 ▲공유주방을 활용한 지역 음식 조리 및 기부 ▲은퇴자를 위한 목공예 활동공간 공유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